

A Daily Bread

날짜: 아브 5 일, 5785 년 5 월 (2025 년 7 월 30 일)

토라 문: 말씀들이라 (신명기)

주제: 하늘의 뜻을 위하여

미드라쉬는 모쉐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 장 1 절에는 “모쉐가 광야 요단 건너편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이러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사람을 꾸짖는 자는 아침하는 혀를 가진 자보다 후에 은총을 입을 것이니, 그보다 더 입을 것이리라” 라는 잠언 28 장 23 절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잠언 구절에서 “질책하는 자”는 모쉐를 가리키고, “사람”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너희(이스라엘)는 내 양 떼, 내 목장의 양 떼, 사람이니라” 라고 에스겔 34 장 31 절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라는 부사는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이어서” 혹은 “그 후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 대화의 주자는 “송축 받으실 거룩하신 여호와” 이시며, 이 말씀의 핵심은 “모쉐가 이스라엘을 꾸짖은 것은 이스라엘을 ‘나를 따라’, 즉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입니다. “그가 은총을 얻을 것이다”에서 은총의 수령인은 모쉐를 가르칩니다. 이는, “너도 내 눈에 은총을 입었느니라”라는 출 33:12 절의 기록 된 말씀으로 같은 뿌리에서 발현된 예언입니다. “아침하는 혀를 가진자보다 더 많은 자”는 빌람을 가르치며, 그가 호의적인 예언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침”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거만하고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만했던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죄를 지어 싯딤에서 멸망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아침하는 빌람입니다.

미드라쉬는 “꾸짖는 자”가 모쉐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꾸짖는 “사람”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드라쉬는 모쉐의 꾸짖음이 여호와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크샤브 소페르는 이를, 모쉐의 질책이 이스라엘의 눈에 호의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쉐의 꾸지람을 받아들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크샤브 소페르에서의 설명은, 미드라쉬의 의도가 이스라엘이 대중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사람의 꾸지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면하는 자가 진술하지 않고, 확신보다는 의무감에서 꾸지람을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쉐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민수기 16:15)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백성을 질책해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쉐는 그렇게 하려고 애썼을까를 들여다 보도록 합니다: 분명히 그는 오로지 하늘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의 꾸지람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백성을 죄에서 보호하고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책한 동기가 더 숭고한 것에서 기반한 것이어서, 모쉐의 이스라엘을 향한 질책은 거부되지 않고 오히려 호감을 받았습니다.

A Daily Bread

이러한 생각은 미드라쉬의 해설에서 암시됩니다. 이 구절은 "나를 따르도록 사람을 꾸짖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손톱만큼의 이득도 바라지 않고 오직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질책 한다면, 그는 자신의 멧세지가 그들의 눈에 호감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혀로 말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존하며, 그들이 그가 매끈한 말로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 할 뿐이며, 오직 순수히 창조주 여호와 엘로힘의 나라를 위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사브 소페르는 진심 어린 꾸짖음이라는 초점에 기반하여 다른 각도에서 이 경우를 조명하며 현답을 제시합니다. 모셰는 유창한 언변으로 유명세를 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에 근간한 말씨는 그 말씨를 듣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마음에 강도 깊은 인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 새겨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드라쉬의 가르침의 요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웅변이나 교묘한 말로 그들의 호감도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자에게서는 진정한 성취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솔하고, 의로운 목적만을 집중하여, 남에게 자신이 칭찬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는 걱정 없이 바로 적절한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나를 따르도록 사람을 꾸짖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꾸짖는 목적이 자신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충실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진심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도 덕행으로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기적인 의도로써, 부드러운 아침과 달콤한 말로 된 다듬은 말투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한 단 하나의 목적, 곧 듣는 사람들의 호감도를 얻는 데만 목적 된 것이지만, 진솔한 질책을 하는 자는 비할수 없이 광대한 층의 여호와와의 은총과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덕을 세우는 큰 호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샬롬.